

### 오피니언 리더



방충현  
광주동명교회 원로장로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신다. 완전히 이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단장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므로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애절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이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 성곽을 측량하며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전사의 측량이다. 이 성의 규모가 1 스타디온이 185m 이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20km 의 정 육면체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달동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루어오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부러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절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붓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불행 사망이라 하신다. 구원 받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심판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붓에 던져진다. 이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아 맑더라 하신다.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며 그 길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성 안에서 정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 전이심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권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갈 것이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에 있으리라. 장차 무릎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리고 살 전극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신비롭고 장대하다. 누가 들어가갈 것인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를 위한 새 예루살렘 인 것이다.

위쪽글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칼럼 식혜(食醴)는 식물성 당화식품이고, 식혜(食醴)는 동물성 발효식품이다

식혜(食醴)와 식혜(食醴)는 둘 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품으로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식혜(食醴)는 당화(糖化)를 통한 식물성 음료식품이지만, 식혜(食醴)는 곡류와 함께 생선도 사용하는 동물성 발효식품이다. 전통식품인 식혜(食醴)와 식혜(食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문가로서도 식혜(食醴)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발효는 미생물이나 균류 등을 사용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기적으로 당화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식혜(食醴)는 미생물이나 균류 등을 사용하지 않기에 발효식품은 아니다. 반면에, 단술(甘酒)은 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다. 균류인 누룩곰팡이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의 당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부는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원래 밥의 전분이 가수분해되어 당화되면 식혜가 되고, 당화된 엿당이나 포도당이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생성되어 술이 되고, 다음단계 발효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식초(食醋)가 된다. 식혜(食醴)라는 단어는 ‘밥 식(食)’, ‘식초 혜(醴)’가 결합된 것으로, ‘밥을 발효시킨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옛날 사람들도 전분이 가수분해되는 당화를 마치 발효 개념으로 이해해서, 식혜(食醴)라는 단어에 ‘식초 혜(醴)’라는 한자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혜(食醴)에는 식초(조산)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제조과정도 발효가 아니기에 용어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식혜(食醴)라는 단어 자체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 만들어졌기에 그럴 수 있으리라 본다. 반면에, 식혜(食醴)는 ‘밥 식(食)’, ‘젓갈 혜(醴)’가 결합된 단어로 ‘밥을 넣은 젓갈’이라는 의미이다. 젓갈같은 곡류를 생선(또는 고기)의 식재료로 식힌 발효식품이다. 식혜(食醴)와 식혜(食醴) 두 단어가 비슷해서 매우 혼동스럽다. 그렇기에, 옛날 서당 훈장 선생님의 한자실력을 ‘식초 혜(醴)’와 ‘젓갈 혜(醴)’

를 바르게 구분해서 쓸 수 있는지로 테스트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식혜(食醴)와 식혜(食醴)가 같은 것으로 일부 백과사전에 잘못 정의되어 있기도 해서 일반 사람들은 더욱 혼동할 수 있다. 식물성 당화식품인 식혜(食醴)를 오랫동안 보관가능한 저장식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선을 사용하는 동물성 식품인 식혜(食醴)는 소금을 사용하는 젓갈과 술의 중간 정도의 발효를 이용한 저장식품 측면이 있다. 곡류와 생선을 함께 발효시켜 만드는 식혜(食醴)는 북한 그리고 볼레안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고, 젓갈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요즘도 가지미식혜, 팥대식혜가 전통적인 식혜(食醴)음식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리굴비(굴비를 보리에 넣어서 보관)나 식힌 홍어(홍어를 삶겨서 파문어 보관)도 식혜와 같이 일종의 발효과정을 거치는 저장식품 범주에 들어간다. 굴비나 미주를 벗겨내 매달아 발효시키면서 숙성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벗겨내 있는 누룩 곰팡이균을 통해 생선과 콩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효소분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발효를 이용한 맛갈스런 전통식품으로 불리는 옛 선조의 지혜이다.



이원재  
·서울대 KABT 졸업  
·KBT 연구원으로 근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박사학위 취득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약대학 학장과 임상약대학원장 역임

### 신교칼럼 101



장찬익 신교사  
이탈레전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공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몰락과

▶지나호에 이어서  
이슬람은 알라의 절대권력을 몇몇 지도자들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라의 법과 규범을 정하고 그 법과 규범을 각 사회적인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성에 적용하여 이슬람공화국을 이루는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슬람의 목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인간의 평

등과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슬람주의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였고 국민들은 그들을 위한 노예였고 노동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지난 47년동안 단 한 번도 오지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47년 동안에 10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작년 말에는 3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슬람 정부의 종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중에도 이슬람 반대 시위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국민들은 이슬람의 앞 면과 뒷 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고 이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국민들은 “정치지도자들은 다 죽여라”고 외치면서 이슬람 권력자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은 아저하는지 이번 기회에 나라를 이슬람의

포로생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휴전으로 미국의 아무런 폭탄소리까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안되는데... 미국이 이란과 이대로 협정을 맺어버리면 안되는데... 전쟁이 제대로 끝나야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여 도와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란의 국민들은 1979년 47년 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때 당시에 이란의 정치지도자였던 팔레비왕조의 일가들이 너무나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의 재정을 자기 돈처럼 쓰는 타락한 행실 때문에 이슬람 혁명을 진성하고 동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그런 종교인지를 몰랐다가 속았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슬람이 물러가고 꼭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 이란에 국민들이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권을 지켜 주시고 하루 빨리 이란에 이슬람이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 전쟁이 계속 되면서 경제 위기도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지혜로 경제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더 친송하면서 믿음과 지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4. 이란의 복음전도와 무릎을 위하여 이슬람교회가 잘 준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위쪽글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총회신학

**합동총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b>신학부</b>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b>신학연구원</b>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원동 총신에서 주관함.
<b>학술원</b>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 주말반 :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용목회자 양성
- 교회 개혁, 설립인원,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종교 가입 교단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